

郷土서울 제83호

## 식민지 조선의 백계 러시아인 사회

황 동 하

www.hakso.kr  
2013年 2月  
서울特別市 市史編纂委員會

# 식민지 조선의 백계 러시아인 사회

황 동 하\*

1. 머리말
2. 식민지 조선의 백계 러시아인 사회의 형성
  - (1) 원산수용소 임시 생활
  - (2) 노비나(Новина)
  - (3) 경성의 백계러시아인 사회
3. 경성의 백계 러시아인의 삶
4. 맺음말

## 1. 머리말

묘비 속에 새긴 사진이 유리 속에 잠들고 있는 8세 되는 어린이의 무덤이 보인다. ‘고요히 잠들라. 내 귀여운 애야! 미래엔 저기서 만나게 해다오’하는 러시아어로 쓴 비문이 새겨져 있다. ……아마도 그는 백계 러시아인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혁명으로 쫓긴 백계 러시아인이 이 조선 땅에까지 와서 어린이를 묻는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이 어린이는 러시아 부영사였던 알렉산드르 트로이츠키(Александр С.

.....  
\* 한국교원대 강사

1) 함대훈, 『作家日記, 外人墓地有感』, 『삼천리문학』 2, 삼천리사, 1938, 170쪽.

Троицкий)의 아들 비탈리 트로이즈키(Виталь Троицкий)이다. 그는 1916년 조선에서 태어나 1924년에 죽었다. 그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묻혀 있다(묘지 번호 K-20).<sup>2)</sup> 또 그곳에는 세르게이 치르킨(С. В. Чиркин),<sup>3)</sup> 안드레이 튈킨(А. Д. Тюлкин),<sup>4)</sup> 예프게니 스미르노프(Е. Смирнов)<sup>5)</sup> 등 백계 러시아인<sup>6)</sup>들이 묻혀 있다(표1 참조). 이곳에 묻힌 러시아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왜 이곳에 묻혔을까.

1920년대 초 한반도는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 볼셰비키에 쫓겨 피난 온 백계 러시아인들의 피난처였다. 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상하이, 홍콩, 하얼빈,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샌프란시스코, 일본 등지로 다시 떠났지만, 일부는 한반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들은 식민지시기 조선의 경성과 함경북도 경성군 주유에 “작지만 흥미 있는 러시아공동체”를 만들었다.<sup>7)</sup>

사실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여러 측면에서 관계를 지속해왔다. 그만큼 그 관계도 여러 부침을 겪었다. 조선과 러시아가 ‘나선정벌’이라

2) Donald N. Clark,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t Yanghwajin: An Informal History with Notes on Other Foreign Cemeteries in Korea and Individuals and Families in the History of the Foreign Community in Korea, Seoul Union Church 144 Hapchong-dong, Map'o-gu Seoul 122-220, Korea, 1996(b), 38쪽.

3) 치르킨은 제정러시아 외교관으로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나자, 경성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며 살았다. 그는 1943년에 죽었다.

4) 튈킨은 제정러시아 병사로 1922년에 블라디보스토크를 탈출해 원산으로 왔다. 그는 1924~1941년에 원산과 서울을 오가며 장사를 하며 살았고 1941년 2월 18일에 죽었다.

5) 스미르노프는 경성에서 재단사로 일하며 살았다. 그는 한국전쟁 때 북한군 포로로 잡혀 60살에 북쪽에서 죽었다.

6) 백계 러시아인은 1917년 러시아혁명 뒤 소비에트 정권에 반대하여 만주에 남은 러시아인과 국외로 망명한 러시아인을 가리킨다.

7) *Русские в Корее, ещё в начале века*(<http://www.russiankorea.com/forum/viewtopic.php?f=1&t=4858#p34598>, 검색일 2012년 7월 15일)

는 국지전에서 처음 만난 뒤, 한반도와 러시아 사이에는 제정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 냉전 시기의 대립 등 역사적 우여곡절이 있었다.<sup>8)</sup> 두 나라의 관계에는 국내정세만이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식민지시기에도 그런 복잡한 정세변화가 직접 영향을 미쳤고 조선에 백계 러시아인 사회가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 형성된 백계 러시아인 사회는 오랫동안 잊혔다. 그 탓에 이들에 대한 연구는 최근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대부분 해외에서 나왔다. 러시아 학자 볼코프(С. В. Волков)와 심비르체바(Т. Симбирцева)는 연해주 러시아인들이 조선에 도착하게 된 과정이나 얀코프스키(Янковский) 일가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일본학자 구라타 유카(倉田有佳)는 원산 수용소에 있는 러시아 피난민을 다루었다.<sup>9)</sup> 영미권에서는

8) 황동하 외, 『러시아, 우리에게 무엇인가』, 신인문출판사, 2010, 107쪽.

9) С. В. Волков, “К вопросу о русской эмиграции в Корею в начале 20-х годов,”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Вып. 2. М., 2001, 149~156쪽; Т. М. Симбирцева,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прошлом неотрывны от реалий дня нынешнего(по поводу публикации записок К.С.Чиркина, наваянных мемуарами Ф.И. Шабшиной),” Л. П. Концевич ред.,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Вып. 3. М., 2003(b), 203~207쪽; К. С. Чиркин, “Люди и судьбы. Записки русского эмигранта в Корею,” Л. П. Концевич ред.,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Вып. 3. М., 2003, 208~224쪽; Т. М. Симбирцева, “Семья Янковских в истории Приморья и рус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Л. П. Концевич ред.,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Вып. 5. М., 2007(c), 407~412쪽; В.Ю. Янковский, “Янковские и корейцы,” Л. П. Концевич ред.,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Вып. 5. М., 2007, 413~419쪽; М. М. Гинце, “Новина и Лукоморье, поместья семьи Янковских в Корею(воспоминания юного дачника),” Л. П. Концевич ред.,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Вып. 5. М., 2007, 420~448쪽; 倉田有佳, 「元山のロシア人避難民, 『異郷に生きる—来日ロシア人の足跡』, 成文社, 2001(a), 133~145쪽; 倉田有佳, 元山におけるロシア人避難民: 1922年11月—1923年8月,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자료집, 2006(b), 217~222쪽; Donald N. Clark, “Vanished Exiles: The White Russians of Korea and their Fate,” in Korean

도널드 클라크(Donald N. Clark)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또 세르게이 치르킨의 회고록과 발레리 안코프스키(В. Янковский)의 회고록, 그리고 안코프스키 일가와 보리스 브린너(Б. Бриннер) 일가를 다룬 책이 나오기도 했다.<sup>10)</sup> 이와 달리 국내에서 식민지 조선에 살았던 백계 러시아인들은 방송매체를 통해 단편적으로 소개되긴 했지만<sup>11)</sup> 본격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다.

〈표 1〉 양화진에 묻힌 백계 러시아인들

이름	인적 사항	묘지 번호	사망년도
네브루코프,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Nevlukov, Nikolai Petrovich)		D-21	1912
야코비츠, 보리스 스톱라비치 (Yakovitz, Boris Sravich)	1889년 생	G-15	1936

.....  
 Studies: New Pacific Currents, ed. Dae-sook Suh,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a), 38-55쪽;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The Western Experience 1900-1950, Norwalk: Eastbridge, 2003(c), 142-155쪽.

10) Mary Linley Taylor, Валерий Янковский, Юрий Янковский, Т. Симбирцева (Translator), Нэнунн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одиссея, Библиотека альманаха “Рубеж”, 2007; Valery G. Yankovsky, Escape: A True Story, Sydney: Elliott Snow, 2008; Valery G. Yankovsky, From The Crusades to Gulag and Beyond, Sydney: Elliott Snow, 2007; Mary Linley Taylor, The tiger's claw: the life story of East Asia's mighty hunter, London: Burke, 1956; “Jap Rule in the Hermit Nation,” in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October 1945; Rock Brynner, Empire & odyssey: the Brynners in Far East Russia and beyond, Hanover, N. H.: Steerforth Press, 2006. 러시아 영사로 제정 러시아 붕괴 뒤, 서울 정동에 살았던 치르킨 부부에 대한 기록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С. В. Чиркин, Двадцать лет службы на Востоке. Записки царского дипломата, Русский путь, 2006.

11) 「1935년 코레아. 스텐 베리만의 기억」 3부작에서 함경북도 주월에 정착한 안코프스키 일가가 소개되었다.

코른베프, 이반(Kornbev, Ivan)	러시아 해군 사령관, '보브르(Бобр:비버)'호; 1859년 출생	H-21	1899
짜코프, 비타야(Tsakov, Vitaya)		J-17	
비쉬타흐마르크보브나, 안나 에멜리아노브나 (Vishtakhmarkovna, Anna Emelyanovna)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수리 지역 원주민	K-1	1938
폴리히나, 프라스코바 파블로브나 (Polikhina, Praskovya Pavlovna)		K-2	1941년 1월 16일 사망. 41살
치르키네, 세르게이 비샤리오노비치(Tchirkinе, Sergei Vissarionovich)	1879년 생; 제정러시아 외교관; 러시아혁명 뒤 서울에 남음; 서울외국인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침	K-4	1943
툴킨, 안드레이 다닐로비치 (Tyulkin, Andrei Danilovich)	1869년 생. 제정러시아 병사, 1924-1941년 원산과 서울을 오가며 장사를 함. 1922년에 블라디보스토크 탈출; 한국에 거주했던 많은 백계 러시아 가운데 한 사람	K-5	1941년 2월 18일 사망
스미르노프, 톨리크 (Smirnov, Tolik)	1932년 생. 서울에 거주한 러시아 재단사 예브게니 스미르노프의 아들	K-6	1936
스미르노프, 예브게니 (Smirnov, Yevgenii)	러시아 재단사, 60살, 북한군 포로, 북쪽에서 죽음	K-13-A	1952
키차코프, 일라 (Kichakov, Ilya)	60살, 북한군 포로, 북쪽에서 죽음	K-13-B	1952
레오노프, 미하일 (Leonov, Mikhail)	70살, 북한군 포로, 북쪽에서 죽음	K-13-C	1952
수호틴, 아르카디 파블로비치 (Suhotin, Arkady Pavlovich)		K-16	1945년 9월 15일 사망, 69살
수호틴, 마리아 야키모브나 (Suhotin, Maria Yakimovna)			1945년 1월 1일 사망, 64살
트로이즈키, 비탈리 (Troitskii, Vitali)	1916년 생. 러시아부영사로 러시아혁명 뒤 무국적자로 조선에 남아 사업을 했던 알렉산드르 트로이즈키의 아들	K-20	1924
퐁테라트, 코논 (Funderat, Konon)	서울에 거주한 폴란드 상인.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망		1950 70살
바실리에프, 콘스탄틴 알렉산드로비치(Vasilev,еv, Konstantin Aleksandrovich)	1936년 한국에 도착함		

보로시프, 디미트리 (Vorosiv Dimitri)			
안드레아스, ----- (Andreas, -----)	미국 회사 ECA에서 일한 엔지니어(?)		죽음의 행군
이반 킬린 가족(Ivan Kilin Family) (Ivan Kilin, 아버지, 36 Marusya Kilin, 어머니, 29 Olga, 딸, 8 Nikolai, 아들, 6 Georgi, 아들, 2)			죽음의 행군
살라후딘 가족(Salahudtin Family) (Salim Salahudtin, 아버지, 50대 중반 Fraiza Salahudtin, 어머니, 40대 후반 Sagid, 아들, 18 Sagida, 딸, 17 Farid, 아들, 13 Shaucat, 아들, 9 Murat, 아들, 6 Hamid, 아들, 1)	터키계 1930년대 인구조사에는 ‘Salahudtinoff’라는 백계 러시아인으로 기록됨.		죽음의 행군
푼데라트, 나탈리아 (Funderat, Natalya)	코논 푼데라트의 부인		1950년 11월 3일 ‘죽음의 행군’ 동안 북한에서 사망

\* 색깔이 진한 곳은 한국전쟁 때 북한군 포로로 생포되어 북쪽에서 죽은 사람들  
(출처: Clark, 앞의 책, 1996(b)을 보고 표로 만들음).

이 글은 식민지 조선에서 나온 자료들과 해외 연구 성과를 이용해서 식민지 조선의 백계 러시아인 사회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난 뒤, 백계 러시아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경성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 2. 식민지 조선의 백계 러시아인 사회의 형성

이 그림은 『皇城新聞』 1900년 7월 4일에 실린 자전거 광고이다. 아마도 국내에서 나온 최초의 자전거 광고로 추정된다. “정동 초입에 있는 怡泰号上邊 新築洋屋主人 캐리스키”는 새로 수입한 자전거를 팔려고 신

(그림 1)



문에 광고를 냈다. 캐리스키는 러시아사람인 것 같다. 식민지시기 이전에 러시아사람들은 정동 러시아공사관 근처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사실, 러시아사람들이 극동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철도건설 붐 때문이었다. 시베리아 철도 건설에 따라, 관리, 철도노동자, 광부, 신부, 사냥꾼 등 많은 러시아사람들은 극동 지역으로 이주했다.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들 가운데 일부는 만주를 통해 조선

북부로 이주하기도 했다.<sup>12)</sup> 이들 뿐만 아니라,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러시아 사람들은 경성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러시아인 사회’가 한반도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인 사회의 성격은 러시아 국내 상황의 변화로 크게 달라진다.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제정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서자, 조선에 있는 러시아인 사회는 20세기 초 국제 정치 상황에 휘둘리는 “쫓겨난 사람들”<sup>13)</sup> 다시 말해 ‘망명촌’이 되었다.<sup>14)</sup>

1917년 러시아혁명 뒤, 러시아는 4년 동안 벌어진 내전(1918~1922년)에 휩싸였다. 제국주의 열강이 혁명러시아에 대한 간섭전쟁을 일으키자, 러시아 안에 있는 반혁명세력(백군)이 소비에트 정부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1918년 7월 4일

12) Clark, 앞의 논문, 1994(a), 41쪽.

13) Clark, 앞의 논문, 1994(a), 42쪽.

14) 러시아 디아스포라(Diaspora)가 시작된다. 흔히 이들을 러시아 망명 1세대로 여긴다(이 채문, 『동토의 디아스포라: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인들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07, 87~121쪽을 참고할 것).

극동소비에트정부가 지휘하는 붉은 군대와 콜차크(А. В. Колчак) 제독을 중심으로 한 백군 부대 사이에 시베리아와 연해주를 둘러싼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오랜 전투 끝에, 1922년 10월 붉은 군대가 러시아 극동군의 행정 중심지인 블라디보스토크(Владивосток)를 점령했다. 이로써 극동에서 벌어진 ‘내전’은 막을 내렸다. 그 탓에 극동의 반혁명세력을 이루었던 백계 러시아인들은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1922년 10월 21일부터 백계 러시아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탈출하기 시작했다. 10월 24일 글레보프(Ф. Л. Глебов) 중장이 이끄는 극동군 병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와 한반도 북부 사이에 위치한 포시에트(Посьет) 항구에 도착했다. 레베데프(Д. А. Лебедев) 장군이 이끄는 우랄-경기병 여단(Урало-Егерский отряд)의 병사와 가족들도 포시에트 항구에 도착했다. 마지막으로 10월 25일에 스타르크(Ю. К. Старк) 제독은 해군 병사들과 가족들을 태운 시베리아함대를 이끌고 포시에트 항구에 도착했다.<sup>15)</sup>

그러나 극동군 사령관 미하일 디테리흐스(М. Дитерихс) 중장은 행선지를 정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스타르크 제독은 독자적으로 원산을 결정했다.<sup>16)</sup> 그는 포시에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원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러운 철군으로 장거리 항해에 필요한 물자를 제대로 갖추지 수 없었고, 무엇보다 극동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국가들이 패잔병인 ‘백군’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신해혁명 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군벌들이 지역별로 득세해 러시아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sup>17)</sup> 극동지역에 항구를 가지고 있는

15) Б. Б. Филимонов, Конец Белого Приморья, Роквилль, 1971, 355~356쪽.

16) Волков, 앞의 논문, 2001, 150쪽.

17) 진시원, 「동아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기원과 역사: 청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까지」, 『國際政治論叢』 제44집 3호, 2004, 138쪽.

영국 등 일부 서방세력은 모두 백계러시아인들을 받아들여려 하지 않았다. 미국은 볼셰비키 정권에 반대하고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항구는 마닐라로 2천마일 이상이나 떨어져 있었다. 반면 일본은 백계러시아 지도자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백군 지도자들은 자연스럽게 일본의 식민지로서 포시에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원산을 선택했던 것이다.<sup>18)</sup>

1922년 10월 28일 러시아인들은 포시에트를 출발해 10월 31일에 원산에 도착했다. 그 뒤 몇 번에 걸쳐 난민을 태운 선박이 잇달아 원산에 도착했다.<sup>19)</sup> 『露國避難民救護誌』에 따르면, 10월 23일부터 피난민은 잇달아 원산에 도착하여 11월 6일까지 그 수는 9,000명 이상에 이르렀다고 한다.<sup>20)</sup> 9,000명 가운데에는 붉은 군대와 전투할 때 중경상을 입어 부상당한 군인과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배 안에는 정원보다 많은 사람이 비좁은 배 안에 무리지어 있었고 먹을 것도 모자랐으며, 수면부족과 극도의 피로와 기아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홍열, 장티푸스 환자가 생길 수 있을 만큼,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sup>21)</sup>

1922년 11월 1일 현재 원산항에 도착한 러시아난민의 숫자는 총 7,504명이었다. 부상병 541명, 해군과 승무원 1,221명과 이들의 가족 342명(남 5명, 여 208명, 어린이 129명) 그리고 군인 2,830명, 유년학교 생도가 307명, 일반 피난민이 2,263명(남 668명, 여 793명, 어린이 802명)이었다.<sup>22)</sup>

일본 정부는 러시아 피난민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 일본은 시

18) Воликов, 앞의 논문, 2001, 150쪽.

19) Воликов, 앞의 논문, 2001, 151쪽.

20) 朝鮮總督府內務局編, 『露國避難民救護誌』, 京城, 1924, 2-3쪽. 그러나 도널드 클라크에 따르면, 이 숫자가 15,000명을 넘는다고 한다(Clark, 앞의 논문, 1994(a), 43쪽).

21) 朝鮮總督府內務局編, 앞의 책, 1924, 3~4쪽.

22) 倉田有佳, 앞의 논문, 2006(b), 217쪽.

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내전에서 백계 러시아군을 도와 적극적으로 참전했고 그 과정에서 백계러시아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사실 일본은 이 내전에 가장 먼저 참전했다. 일본은 1918년 1월 12일 군함 이와미를 블라디보스토크에 파병했다. 뒤이어 순양함 아사히가 증파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총영사 기쿠지 기로(菊池義郎)는 입항 목적이 ‘일본거류민들을 보호’ 하는데 있으며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sup>23)</sup>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의 불안정한 정국으로 조선과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 지역에서 일본의 주도권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명분 때문에 참전했다. 그래서 일본은 군대를 동청철도 부근과 연해주 일대에 전진 배치했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러시아의 내전과 혁명을 틈 다 동시베리아 지역을 관리하려는 팽창의욕을 숨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림 2〉 경성조합기독교회가 마련한 빵떡을 먹으면서 경의선 열차가 떠나길 기다리는 피난민 광경



(『동아일보』, 1923년 8월 1일, “奉天을 향하는 露國避難民”).

그러나 일본은 소련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러시아 피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처지에 있지 않았다. 일본정부로서는 러시아 피난민이 ‘계류’이었다. 일본은 피난민의 상륙을 허용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도록 촉구했다. 러시아 선박에는 항해하는 데 필요한 물자가 거의 바닥이 나 있었다. 다른 곳으로 가려면, 필요한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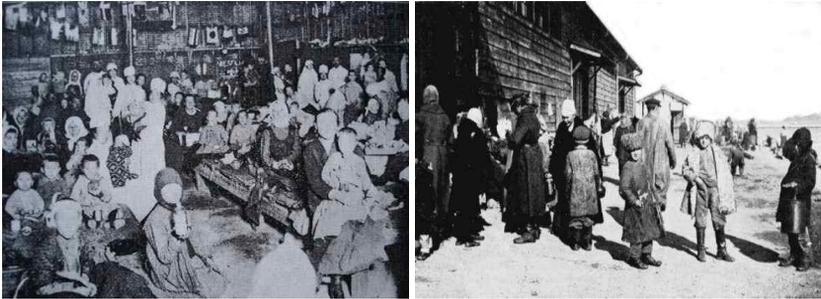
자를 공급받아야 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출항을 전제로 스타르크 제독에게 물과 석탄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난민들을 이끌고 있는 스타르크

23) 윤상원, 「시베리아내전의 발발과 연해주 한인사회의 동향」, 『韓國史學報』 41, 2010, 279쪽.

제독은 일본정부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없었다. 더구나 곧 겨울이 다가와 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하게 11월 21일 약 1,970명(해군 약 1,500명, 유년학교 생도 335명 및 그 가족 129명)이 14척의 함선에 나누어 타고 원산을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11월 23일 부산에 도착한 스타르크 일행은 선박을 보수하고 난 뒤 러시아난민을 실은 다른 함선과 합류해 12월 2일에 한반도를 떠났다.<sup>24)</sup> 스타르크 제독 일행이 원산을 떠난 뒤 원산에 남은 피난민의 수는 5,572명에 이르렀다.

### (1) 원산수용소 임시 생활

〈그림 3〉 원산수용소



(倉田有佳, 앞의 논문, 2006(b), 222쪽)

원산에 수용된 러시아피난민……의 대부분은 관군이며 붉은 군대에게 참패한 패전자로서 가족을 합하여 7천 5~6백 명이 함선 23척에 나누어 타고 멀리 이국의 원산 항만에 도착하여 운명을 결정지으려고 한다. 그네의 행선지는 처음에는 정해지

24) Ю. К. Старк,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ибирской флотилии 1921–1922 год* (<http://militera.lib.ru/h/whitefleet/30.html> 검색일: 2012.09.12.). В. П. Старк, “Адмирал Ю. К. Старк.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ибирской флотилии. 1920–1922 гг.,” *Звезда*, №2, 2001, 123–137쪽; Ю. К. Старк & В. П. Старк, *Последний оплот: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ибирской флотилии 1920–1924*, Русско-Балтийск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БЛИЦ», 2003.

지 않았지만, 대체로 중국 하얼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여행권이 없고, 1,500원 하는 배식도 없고 엮친 데 덮친 격으로 심지어 숙박할 돈도 없어서 당국은 상륙을 금지하였다. 되돌아가려 해도 석탄이 부족하고……부상자의 곤경과 내일부터 먹을 것도 모자라 진퇴양난에 빠진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으리요. 차라리 우리를 원산 바다 한가운데에 산 채로 매장시켜달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 뒤 일본 적십자사와 당국의 도움으로 부상자 6백 명은 예전에 수산물평회장인 동세관 창고에 수용해서 치료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소수의 인원도 상륙할 수 있어서 옛 세관 관내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지냈다.……그들이 수용된 창고를 돌아보았다.……창고 안에는 중경상자로 가득했으며……공기는 더러웠다. 창고 안 바닥 위에 나무판자를 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또 어떤 사람은 얼굴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전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이 추운 겨울에 나와 같이 건강한 사람도 이런 곳에서는 견딜 수 없는데 앓아누운 사람들은 어떠하리오.……곰팡이가 난 빵 조각을 먹고 있는 그들의 여윈 얼굴……물정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보는 사람마다 돈을 달라하며……마치 영화 같은 비극을 보는 듯…….25)

〈그림 4〉 죽은 사람의 장례 장면



(倉田有佳, 2006, 222쪽)

원산수용소를 방문한 조선 사람이 쓴 글이다. 그가 표현했듯이, 수용소 생활은 마치 ‘활동사진’에 나오는 가상의 세계인 것처럼 믿기 힘들었다. 그는 너무 끔찍해서 “동정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지 못하였다”고 한다.<sup>26)</sup> 9개월 동안 수용소 생활에서 221명이 죽었다.<sup>27)</sup> 그 가운데에는 병으로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세상을 비판하여 자살한”<sup>28)</sup> 사람도 적지 않았다.

25) 『조선일보』, 1922년 12월 4일, “露國 避難民의 窮相을 보고”.  
 26) 『조선일보』, 1922년 12월 4일, “露國 避難民의 窮相을 보고”.  
 27) 倉田有佳, 앞의 논문, 2006(b), 218쪽.(5세 미만의 어린이가 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28) 『동아일보』, 1923년 1월 14일, “避難露人自殺”.

날씨가 추워지면서, 피난민의 처지는 더욱 나빠졌다.<sup>29)</sup> 난민을 도우려고 ‘노국피난민 경성위문회’가 조직되었고,<sup>30)</sup> 이화 학생들은 옷을 만들어 보냈다.<sup>31)</sup> 경성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러시아피난민 구제위원회를 조선호텔에서 열었다.<sup>32)</sup> 미국인 선교사 아서 노블(William Arthur Noble)은 러시아난민원조협회의 회장을 맡았다.<sup>33)</sup>

조선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단에서는 조선에 있는 외국인에게 아라사피난민을 위해 자금을 모집하여 양식을 사주고 기타 구제에 힘을 쓰는데, 그 사무소를 태평동 ‘테일러’의 집에 두고 선교사 노엘저만스 이외 많은 의원을 임명하고 사무를 집행하며 또 예전에 미국군대가 시베리아에 출전하였을 때 종교하였던 기독교 청년 회원에게 보내려고 모집한 기부금 가운데 남은 돈 이 천원도 미국영사관에서 금번 그 피난민에게 보내기로 되었다고 한다.<sup>34)</sup>

피난민을 대표한 레베데프 중장은 경성을 방문하여, ‘이름도 모르는 동포의 기증’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sup>35)</sup> 난민 생활은 고달파 ‘먹을

29) 東邦生, 「元山に露國避難民を訪ふ」, 『朝鮮 及 滿洲』 185, 1923, 93쪽.

30) 『조선일보』, 1922년 12월 5일, “피난露의 위문회. 경성의 각 유지가가 조직. 눈서리 찬 원산 바다속에서 우는 로국피난민을 위하여 금품모집”; 『조선일보』, 1923년 8월 7, 10, 11, 12일, “露國 피난민. 구호 전말, 1-4”; 『동아일보』, 1923년 1월 21일, “露避難民慰金 三萬圓, 赤十字社愛國婦人會에서 募金”; 『동아일보』, 1923년 1월 14일, “露國避難民 京城慰問會近近解散”; 『동아일보』, 1923년 1월 4일, “避亂露人에 義捐, 馬山기독교녀자청년회에서”.

31) 『조선일보』, 1922년 12월 16일, “5백처녀 열성의 동정. 철야제한 의복이 1천여건. 원산서 치움을 부르는 피난민과 만주에서 고생하는 동포를 동정”.

32) 『동아일보』, 1923년 2월 22일, “慈善演藝大會, 朝鮮通信社主催로 「아라사」 피난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조선일보』, 1922년 12월 13일, “外人慈善演藝會. 京城外人團은 元山露國避難民을 救濟하고자 來十四·十五 兩日間 朝鮮호텔에서”; 『동아일보』, 1922년 12월 21일, “피난민구제위원회”.

33) 매티 윌콕스 노블 지음, 강선미·이양준 옮김, 『노블일지 1892-1934: 미 여선교사가 목격한 한국근대사 42년간의 기록』, 이마고, 2012, 291~293쪽.

34) 『동아일보』, 1922년 12월 6일, “在京外人의 救濟, 아라사피난민에 대하여”.

것이 없어 처녀들은 바이올린이나 만돌린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며 한 푼 두푼을 얻어 ‘빵떡’을 사 먹고, 급기야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타고나온 군함 두 척을’ 경매에 붙여 팔기도 했다.<sup>36)</sup>

지난 십오일 오후 여섯시 경에 러시아군복을 입은 러시아사람 십삼 명이 양주경찰서에 와서 밥을 달라고 해서 이 경찰서에서는 저녁밥을 먹인 뒤 곧바로 철원으로 보냈다고 한다. 이 러시아사람들은 원산에 체류하던 러시아 피난민이다.<sup>37)</sup>

미국선교사인 노블(W. A. Noble)은 그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원산 항구에……사람들은 버려진 세관창고를 숙소로 이용했다. 그들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건물의 난방은 중앙에 놓여 있는 작은 난로밖에 없었다.……여러 주 동안에 그들은 임시막사에서 살고 있었고 일상의 안락함과 위생을 위한 수단 없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따라서 쓰레기와 해충에 희생당했다. 기근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었다.<sup>38)</sup>

그러나 러시아인들은 임시적이긴 하지만 일을 해야 살 수 있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서, 러시아인들은 일자리를 신청했다. 그 수는 610명이었고 그 가운데 43명이 일자리를 얻었다(표2 참조). 또 그들은 단체로 철도공사나 도로공사,<sup>39)</sup> 철원중앙수리조합<sup>40)</sup>에서 일을 했다.

35) 『조선일보』, 1922년 12월 16일, “수만동포의 감사를 진정. 朝鮮의 언론계를 통하여. 露國 피난민의 대표 레페씨는 이름모르는 동포의 기증을 하례”.

36) 『조선일보』, 1923년 3월 2일, “露國 軍艦을 경매. 원산에 있는 피난민은 飢寒을 못 견디서”.

37) 『조선일보』, 1923년 10월 11일, “楊洲에도 乞食露人”.

38) W. A. Noble, “The Russian Refugees at Wonsan,” The Korea Mission Field, XVIII: 11, December 1922, 277쪽.

39) 『동아일보』, 1923년 4월 11일, “鐵道工事に 露人”.

40) 『조선일보』, 1923년 3월 11일, “露國 피난민 使役”; 『조선일보』, 1923년 2월 17일, “避難露人을 雇用”.

〈표 2〉 취직을 희망한 피난민 610명 가운데 취직을 한 43명의 표

직장	직업	사람수
야마구치키치지(山口吉次郎, 원산)	햄 제조공	10명(남)
운산금광(雲山金鑛)	광부감독	7명(남-4명, 여-3명)
경성 러시아영사관 내 구제회(京城露國領事館內救濟會)	구두제조공	7명(남)
원산 러시아영사관(元山露國領事館)	사무원	6명(남-4명, 여-2명)
강원도농장(江原道農場)	고용인	3명(남)
경성 미국인(京城 美國人)	고용인	2명(남)
능산금광(稜山金鑛)	목공	2명(남-1명, 여-1명)
능산금광	기계공	1명(남)
경성 세토의원(京城 瀬戶醫院)	간호사	1명(여)
나남 창선이무(羅南 倉山李武)	빵 제조공	1명(남)
평북창성군 프랑스인 금광	사무원	1명(남)
경성 통구사진관	사진관 보조원	1명(남)
경성 일본인	결혼	1명(여)

(출처 : 『露國避難民救護誌』, 108쪽.)

또 러시아피난민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문을 열었다.

아라사 피난민 제2수용소인 송전만에는 일찍이 아동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었다. 이번에 학교를 설립하고 지난 12월 28일부터 수업을 시작했는데, 150명의 생도를 셋으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으며, 제1수용소, 즉 옛 세관에 있는 피난민의 자녀에게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교육을 할 생각이라고 하더라.<sup>41)</sup>

제2수용소뿐만 아니라, 제1수용소에서든 임시학교가 문을 열어 1923년 1월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임시학교의 교실이 좁았기 때문에, 조선불교연합회 원산지부가 중심이 되어 공사비 2,200원을 지원해 42평 규모의 예배당을 새로 지어 학교로 사용하기로 했다. 1923년 2월 18일에 공사가 끝나 2월 27일에 개교식을 했고 그날부터 수업이 시작되었다. 개교할 때에는 학생 수가 약 200명이었지만, 제2수용소에 있는 학교가 이전해서

41) 『동아일보』 1923년 1월 9일, “避難民子弟를 위하여 學校設立: 원산과 송전만에”.

합친 다음에는 전체 학생 수가 336명으로 늘어났다.<sup>42)</sup>

〈표 3〉 원산수용소학교생활

	초등과	중등과
학급수(연령)	1-3개(8세 이상 10세 미만)	4-6개(11세에서 16세)
수업과목	종교, 러시아어, 역사, 산술, 박물학, 지리, 영어, 일본어, 대수	종교, 러시아어, 역사, 산술, 박물학, 지리, 대수, 기하학, 물리학
수업시간	오전 8시-오전 11시,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2시-오후 6시
학생수	240명	96명
교원수	11명에 영어과와 일본어과 각각 1명씩을 추가하여 모두 합해 13명	17명

(출처 : 倉田有佳, 앞의 책, 2001(a), 138쪽.)

그러나 1923년 7월말에 원산수용소가 폐쇄되면서 학교도 1923년 7월 25일에 문을 닫았다.<sup>43)</sup> 몇 차례에 걸쳐 러시아피난민들은 원산을 떠나 상하이 등지로 떠났다.<sup>44)</sup>

대부분의 백계 러시아인들은 9개월가량 수용소생활을 끝내고 백계 러시아인들의 집단거주지가 있는 외국으로 떠났지만, 1920년대 말까지 대략 100명에서 200명 정도는 경성 등지에 남아 정착했다.<sup>45)</sup> 경무국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조선 내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의 수가 경기도에 52명 평안북도에 12명 함경북도에 66명 충청남도에 1명 강원도에 1명으로 합계 136명”이라고 한다.<sup>46)</sup> 이들이 식민지 조선에 백계 러시아인 사회를 만들었다.

42) 朝鮮總督府內務局編, 앞의 책, 1924, 51~54쪽.

43) 朝鮮總督府內務局編, 앞의 책, 1924, 54쪽.

44) 『동아일보』, 1923년 6월 20일, “五百名の 露國避難民 元산을 떠나 상해로”; 『동아일보』, 1923년 6월 23일, “元산에 있던 露國避難民七百退去”.

45) Волков, 앞의 논문, 2001, 155쪽.

46) 『동아일보』, 1925년 1월 31일, “白系露人の 處置, 日露條約成立으로 因한”.

(2) 노비나(Новина)

〈그림 5〉



함북도 내에 산재한 백계러시아인은 청진에 본가를 둔 ‘양교쓰카’ 일파를 중심으로 하여 30여명으로 당국에서는 현재 시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들의 일상행동을 주목해왔다. 최근 얼마 전 그들은 비밀리에 문서로서 연락을 주고받아 주을 온천 ‘양교쓰카’ 별장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장시간 무슨 회의를 거듭했다. 절대로 회의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그들의 처지를 보아 당국에서는 한층 더 그들의 행동을 주목하게 된다.<sup>47)</sup>

이 기사는 식민지 조선에서 나온 양코프스키 일가에 대한 보도이다. 여기서 ‘양교쓰카’ 별장은 바로 유리 양코프스키가 함경북도 주을에 만든 ‘노비나’를 뜻한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까?

유리 양코프스키의 아버지 미하일 양코프스키(Михаил Янковский)는 폴란드 정치범이었지만 자유의 몸이 되어 블라디보스토크 남쪽에 있는 시지미(Сидими)반도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말과 꽃사슴 등을 사육하고 인삼을 재배하는 커다란 농장을 건설했다. 미하일은 연해주에 주둔한 연대병력에 군마를 제공했고, 녹용과 인삼을 팔아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

47) 『毎日申報』, 1933년 6월 20일, “白系露人の 會合을 當局에서 注目”.

〈그림 6〉 1920년대에 유리 얀코프스키와 그의 아들들



머지않아 시지미반도가 ‘얀코프스키 반도’로 불릴 만큼 그의 사업은 나날이 번성했다. 1912년 미하일이 죽고 난 뒤, 얀코프스키 농장은 장남인 유리가 관리했다.

1917년경에 유리는 일본에 군마를 팔면서 차츰 국제적인 사업가로 변신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볼셰비키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전이 일어나면서 볼셰비키가 동쪽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1922년쯤에 유리는 볼셰비키가 연해주에 다다를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청진으로 보내 집과 농장을 세울 곳을 사들이게 했다. 그 뒤 곧 볼셰비키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하자, 1922년 10월에 얀코프스키 일가는 볼셰비키를 피해 시지미반도를 떠나 청진에 도착했다. 얀코프스키 일가는 두 채의 작은 흙집에서 겨울을 보냈다.<sup>48)</sup>

조선에서 얀코프스키 일가를 다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얀코프스키 일가의 ‘재기’는 우연하게 이루어졌다. 1925년에 온포로 옮기면서,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

한국에서 가족의 삶은 우연히 바뀌게 되었다. 1925년 여름에 아버지는 청진에서 40킬로미터 떨어진 온포지역의 온천장 주인인 가네마에게 자동차를 팔았다. 가네마는 얀코프스키 가족을 자신의 휴양지로 초대했다. …… 아버지는 한국인이 소유한 집을 여름동안 빌렸다.<sup>49)</sup>

48) Clark, 앞의 책, 2003(c), 150쪽.

49) M.M. Гинце, 앞의 논문, 2007, 420쪽.

1926년에, 유리는 일본군에 식량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었다.<sup>50)</sup> 이렇게 벌어들인 돈과 먼 친척인 보리스 브린너(Борис Вриннер)<sup>51)</sup>에게 돈을 더 빌려 주을에 가옥과 대지를 구입했다. 그들은 그곳에 ‘노비나’라는 이름을 붙였다.<sup>52)</sup>

노비나는 1926년에서 1945년까지 19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 시기에 안코프스키 일가는 농장, 가축 사육, 사냥, 휴양지로 그들의 영지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었다. 1928년이 시작되면서 노비나는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했다.<sup>53)</sup>

〈그림 7〉 1937년 주을에서 호랑이 사냥을 나서는 율 브린너 (Yul Brynner)



노비나가 번성한 데에는 그들의 뛰어난 사업 수완도 한 몫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식민당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때문이었다. 193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전시체제로 들어서면서, 조선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은 해안가에 별장을 지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 지도, 라디오 등을 몰수당했지만, 안코프스키는 노비나 근처의 해안가에 또 다른 휴양지를 지을 수 있었다. 그 휴양지는 ‘루코모리예(Лукоморье)’라고 이름을 붙였다. 일본인들은 그것을 ‘류켄(Ryuken)’으로 불렀다고 한다.<sup>54)</sup> 노비나와 루코모리예는

50) Clark, 앞의 책, 2003(c), 151쪽.

51) 보리스 브린너는 대한제국 말기에 ‘압록강산림채벌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그는 영화배우 율 브린너의 아버지이다. 율 브린너도 1937년에 노비나에서 사냥을 했다.

52) M.M. Гинце, 앞의 논문, 2007, 421쪽.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도 참조할 것. В. Ю. Янковский, “Novina,” Восточная коллекция, 2002, No. 3, 121~135쪽.

53) M.M. Гинце, 앞의 논문, 2007, 421쪽.

54) Clark, 앞의 책, 2003(c), 154쪽.

1930년대 내내 조선과 하얼빈, 북경, 상하이에서 온 백계 러시아인들의 중요한 휴양지가 되었다. “노비나 촌은 극동 지방의 백러시아인 사이에는 잊지 못할 오아시스가 되고 있으니, 여름철에 모여드는 별장 손님들은 그대로 금색 찬란한 <모루>와 훈장으로 옷자락을 장식했던 제정러시아의 거물들이니 노비나의 지위도 이들 사이에서는 그저 보고 말 존재는 아니다.”<sup>55)</sup>

그러나 1937~1945년 태평양 전쟁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전쟁 때문에 여행규제가 실시되어 노비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그들의 수입도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안코프스키 일가는 일본에 식량을 공급하는 일을 계속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독이 되었다. 소련군이 북쪽을 점령하자, 안코프스키 일가는 백계 러시아인일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전시 협력자로 체포되었다.<sup>56)</sup> 그리고 19년 동안 유지되었던 노비나도 폐쇄되었다.<sup>57)</sup>

### (3) 경성의 백계러시아인 사회

1884년 외교관계가 수립된 뒤, “지금 본정 오정목에는 거의 다 러시아 사람의 거주자로 가득하다. 따라서 그 부근의 토지 가옥은 모두 러시아 사람의 소유”<sup>58)</sup>라고 할 만큼, 경성의 러시아인 거주지는 번성했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한 뒤, 러시아인들은 “점점 다른 곳으로 헤어져 가고…그 사람들의 거류지를 철폐”했다.<sup>59)</sup> 일본의 영향력이

55) 『조선일보』, 1938년 6월 8일, “白露人の 망명촌 (5). 망명소감 至言一句”.

56) Clark, 앞의 책, 2003(c), 155쪽.

57) A. H. Ланьков, Русский Сеул: 1917-1945(<http://vestnik.tripod.com/articles/rus-17-45.html>...).

58) 『조선일보』, 1920년 7월 26일, “마산소재의 露人の 財産을 賣却한 狡猾한 日本人을 調査”.

59) 『조선일보』, 1920년 7월 26일, “마산소재의 露人の 財産을 賣却한 狡猾한 日本人을 調査”.

늘어나자, 러시아인들은 조선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게다가 1910년 식민정권의 확립은 러시아인들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러시아를 자신의 적으로 여겼다. 그래서 경성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한 식민당국의 태도는 호의적이 아니었다. 1910년까지 조선에서 사업을 한 러시아 사업가들은 식민정권이 들어선 뒤 조선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 때문에 1910~1917년에 경성의 러시아인 사회는 아주 작았다. 그것은 영사관 관리, 정교회 선교사, 그리고 10여명 가량의 다른 기업가들로 이루어졌다.<sup>60)</sup>

1917년 혁명으로 제정러시아가 무너지자, 조선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상황은 다시 한 번 바뀌었다. 경성에는 무국적자가 된 제정 시기의 러시아 외교관들과 정교회 신부들, 그리고 백계 피난민들로 이루어진 러시아인 사회가 형성되었다.

현재 경성에 있는 러시아인은 약 65명(이 가운데 여자 6명)이다. 이 가운데 대략 40명은 작년 11월 말 이후 연해주 방면에서 피난민으로 입경(入京)한 사람이다. 또 土耳其(터키)계 러시아 상인으로 하얼빈 방면에서 경성에 들어온 약 19명이다.<sup>61)</sup>

‘경성의 백계 러시아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세르게이 치르킨(Сергей Чиркин)<sup>62)</sup>과 그의 부인 나탈리아 치르킨(Наталья Чиркин)이었다. 치르킨은 1911~1914년에 러시아 총영사의 비서로 경성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sup>63)</sup> 혁명이 일어났을 때, 치르킨은 타슈켄트(Ташкент)주재 러시아영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차르제국이 무너지자, 그들

60) А. Н. Ланьков, Русский Сеул: 1917-1945(<http://vestnik.tripod.com/articles/rus17-45.html>... 검색일 2012년 6월 2일).

61) 『조선일보』, 1923년 11월 15일, “京城露人狀況 約 65名”.

62) 치르킨은 1943년 서울에서 죽었다. 그는 양화진 외국인묘지에 묻혔다.

63) Чиркин, 앞의 논문, 2003, 208쪽.

〈그림 8〉 세르게이 치르킨과 그의 부인, 그리고 두 아들



은 무국적자가 되었다. 붉은 군대가 타슈켄트로 몰려왔을 때, 그들은 영국의 도움을 받아 인도로 탈출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향후 목적지를 모색하고 있었다. 치르킨은 예전에 경성에서 사귀었던 독일 상인에게 경성의 상황을 알아보았다. 그의 도움으로 치르킨 부부는 1918년에 경성에 도착해 정동에 있는 정교회 주거

단지 아파트에 살 수 있었다. 치르킨은 조선은행에서 일했고, 관광성, 경성 제국대학 등지에서 외국어를 통역하거나 가르쳤다.<sup>64)</sup> 그의 부인 나탈리야는 미용실을 열었고 경성에서 최신 유행을 선보이는 살롱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1924년에 쌍둥이인 블라디미르와 키릴이 태어나자, 나탈리야는 미용실을 그만두고 집에서 옷을 만들었고 음악을 가르쳤다. 그들은 경성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했다.<sup>65)</sup>

수사 대신부 페오도시(архимандрит Феодосий, 1932년에 사망)와 치르킨의 삼촌이자 마지막 차르 영사인 막시밀리안 헤프틀레르(Максимиллиан Хеффтлер)<sup>66)</sup>도 러시아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모두 정동에 있는 정교회 주거단지에 살고 있었다. 그밖에도 부영사 트로이츠키(Александр С. Троицкий), 세르게이(Сергей) 신부, 예전 제정 러시아의 병사인 안드레이 벨로고로 이(Андрей Белргоровы) 가족(그의 부인도 양장점을 운영하고 있었다)과 이반 티호노프(Иван Тихонов) 등이 살고 있었다. 남대문 시장과 명동 부근에는 이즈란스키(Сызрански

64) Чиркин, 앞의 논문, 2003, 210쪽.

65) Clark, 앞의 책, 2003(c), 143~144쪽.

66) 막시밀리아 헤프틀레르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경성에 사업을 했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스위스로 떠났다. 그는 스위스에서 1980년에 죽었다.

й) 가족, 곤차로프(Гончаров) 가족과 타타르인들과 투르크 계열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었다.<sup>67)</sup> 치르킨의 아들 키릴(К. С. Чиркин)에 따르면, 경성의 러시아인 사회는 약 10가족과 7명의 독신남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sup>68)</sup>

1925년 2월 일본이 소련과 협정을 체결하면서, 경성에는 처음으로 ‘붉은 영사’ 보리스 샤르마노프(Борис Шарманов)가 도착했다. 그와 함께 ‘적계 러시아인’들도 왔다. 그들은 주로 영사관 직원과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관리들이었다. 1945년까지 경성에는 백계러시아인들 말고도 36명의 소련 시민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sup>69)</sup>

### 3. 경성의 백계 러시아인의 삶

백계 러시아인들은 교육 수준이나 예전 직업과 상관없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날 때 거의 빈손이었다. 그들은 “식당종업원, 운전자, 손톱소제사,<sup>70)</sup> 창기, 하녀, 야경부 등<sup>71)</sup> 그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다. 예전에 러시아제국 군대의 군의총감이었던 세제네프스키(Сезеневский) 부부도 경

67) 빼레발로바에 따르면, 1925년에 경성에는 정교회 신자 19명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Т. М. Симбирцева,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Общины в Корее: Проблема Изучения и Новые Факты,”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ифы, Ожидания и Реальность. Часть 2. М.: ИДВ РАН, 2001(а), 51쪽; Архимандрит Феодосий (Перевалов). Российская духовная миссия в Корее за первое 25-летие ее существования (1900-1925 гг.). Харбин, 1926, 164쪽; 디오니시 빠즈드냐예프 엮음, 이오한·이정권 옮김, 『러시아 정교회 한국 선교이야기』, 흥성사, 2012, 제4장 참조.

68) Чиркин, 앞의 논문, 2003, 210쪽.

69) А. Н. Ланьков, Русский Сеул: 1917-1945(<http://vestnik.tripod.com/articles/rus17-45.html>... ).

70) 파냐 이사악꼬브나 샤브쉬나 지음/ 김명호 옮김, 『식민지조선에서』, 한울, 1996, 153쪽.

71) 『동아일보』, 1925년 1월 31일, “白系露人の 處置, 日露條約成立으로 因한”.

성 태평통 ‘텔러’ 상회의 점원으로 일했다.<sup>72)</sup> 양복감과 아라사 빵을 팔면서 생활하고 있는 “부내 정동 25번지에 사는 이반 니콜라이비치 체노파노프(Иван Николайвичь Ченопанов)”처럼,<sup>73)</sup> 그들은 대부분 양복감과 ‘아라사’ 빵을 팔아 생활하고 있었다. 몇몇은 하얼빈에서 국경 밖으로 금시계와 보석 등을 반출하는 밀수업을 하기도 했다.<sup>74)</sup>

백계 러시아인들은 남대문 시장 근처에 살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다. “그들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sup>75)</sup> 양복점을 낸 사람도 있었지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들은 대체로 ‘가내수공업’으로 “가족들은 바느질을 하고 남성은 재단 일을 하는” 정도였다.<sup>76)</sup> 상점을 열 수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오늘날 ‘3D 업종’으로 묘사되곤 하는 일을 했다.

서울에 와 있는 백계 러시아인이 있지만, 그들은 처지가 처지이니 만큼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다. 이른바 러시아 빵이나 기성 양복 또는 양복감을 어깨에 둘러메고 돌아다니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그들을 볼 때는 같은 외국 사람이지만 그 인간만이 딱 딱해 보이기도 한다.<sup>77)</sup>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서일까. 그때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그들은 이따금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유치장에 감금되기도 했다고 한다.<sup>78)</sup>

72) 『동아일보』, 1923년 4월 16일, “舊露國 軍醫總監의 末路, 필경은 상점점원”.

73) 『조선일보』 1925년 2월 8일, “법정에 독소전쟁. 언어맞은 아라사 빵장사가 독일 사람에게 손해를 청구”.

74) Clark, 앞의 논문, 1994(a), 44쪽.

75) Seoul Press, 1925 January 30, 2쪽.

76) Clark, 앞의 책, 1996(b), 100쪽.

77) 「大京城의 特殊村」, 『별건곤』 33, 개벽사, 1929년 9월 27일.

78) 『조선일보』, 1934년 9월 21일, “不良白系露人: 酒店에서 行悖, 二週日式 拘留處分”.

시내 흥파동 78번지에서 운전을 하며 사는 <에이, 에이, 춤킨>과 평동 13번지 <야코레프> 두 명은 다 같이 백계 러시아 사람이다. 그들은 보통 때에도 태도가 좋지 않았는데, 19일 밤 11시 30분에 시내 명치정 이정목 68번지 <토로이카>에 가서 술을 먹다가 이웃 좌석의 손님들에게 주정을 하고 그것을 말리자, 그릇 등을 내던지며 한바탕 야료를 부렸다는 보고를 듣고 관할 명치정 파출소 순사가 현장에 가서 그 두 명을 붙잡자, 그들은 순사에게도 가진 욕설을 다하고 파출소의 유리창까지 깨트렸다. 20일 아침 본정서에서는 두 사람에게 구류 이 주일에 처하였다.<sup>79)</sup>

남대문 구역에는 러시아 매춘도 생겨났다. 가난과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러시아 난민 여성들은 ‘매춘’에 노출되었다.<sup>80)</sup>

금발부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이용하려고 경상북도 대구에서는 樂天 一力亭 芳千閣에 각각 한명의 젊은 금발부인을 데려다가 오는 손님의 소매를 끌고자 함은 시국으로 말미암아 생긴 희비극이더라.<sup>81)</sup>

그마저 식민당국의 감독으로 그들은 실업자 처지가 되었다. “시내 본정 경찰서에서 관내에 있는 각 카페에서 외국인 여급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재차 영업주에게 주의를 시킨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서사헌정에 있는 <살론 아리랑>에서는 독일 여자 릴테애(29, 일명 대경성자)를, 시내 본정 이정목에 있는 본미인좌에서는 로서아 여자 마리아 니나(28)를 여급으로 고용한 사실로 6일 본정 경찰서에서는 두 주인을 호출하여 각각 과태료 십 원을 부과하고 동시에 앞으로는 고용을 절대로 금지시켰다 한다.”<sup>82)</sup>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여성도 있었다. 이제 겨우 17살인 이리에 스타로니젠코는 박도병이라는 사람이 조직한 가무단에 소속

79) 『조선일보』, 1934년 9월 21일, “不良白系露人: 酒店에서 行悖, 二週日式 拘留處分”.

80)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효석의 소설과 기행문에 나오기도 한다.

81) 『조선일보』, 1923년 1월 11일, “요리점에 노국랑(露國娘)”.

82) 『조선일보』, 1931년 10월 7일, “이역에 실업난”.

되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박도병을 경성지방법원에 고소” 하기도 했다.<sup>83)</sup>

이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러시아인들도 있었다. 소련과 일본이 외교관계를 맺자, 헤프틀레르와 트로이츠키는 영사관을 비울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던 그들은 어학원을 열어 외국어를 가르치면서 살았다. 특히 1920년대와 1930년대 경성에서 ‘유행의 첨단을 걷는’ 서구화된 일본과 조선의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이 태어나면서, 최신 유행의 덕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 트로이츠키의 부인은 프랑스인으로 파리의 오프 쿠튀르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의상실을 열어 “마퀴제트, 크레퐁, 매리케인, 보일 등으로 다양한 디자인과 색깔로 최신 유행하는 우아한 여름 드레스를 만들어” 팔았다.<sup>84)</sup> 나탈리야 치르킨은 므메(Мме)<sup>85)</sup>라는 미용실을 열었고 집에서 직접 옷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sup>86)</sup> 이반 티호노프는 작은 작업장에서 ‘메타모르포사 진스(Metamorfosa Jeans)’ 화장품을 만들었다.<sup>87)</sup> “크리스마스의 아버지(Дед Мороз)”<sup>88)</sup>로 불린 이반 티호노프가 만든 화장품은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다. 또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만든 크림을 직접 배달했다고 한다.<sup>89)</sup> 그런 그는 경성에서 괴짜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은어로

83) 『동아일보』, 1923년 7월 11일, “꽃 가튼 露國人 女俳優가 조선사람을 걸어 수당금청구소송”.

84) *Seoul Press*, May 28, 1926, p. 2.

85) 므메는 Madame의 준말이다.

86) A. H. Ланьков Русский Сеул: 1917-1945(<http://vestnik.tripod.com/articles/rus17-45.html>...); J. Earnest Fisher, “William W. Taylor,” *Pioneers of Modern Korea*,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77, 247~260쪽을 참고할 것. 나탈리야 치르킨은 메리 테일러의 연극에 쓰일 옷을 만들었다.

87) Clark, 앞의 책, 1996(b), 125쪽.

88) Phillip Crosby, *March Till They Die*, Dublin: Press of the Publishers, Clonskeagh, Co., 1985, pp. 117~118.

89) Симбирцева, 앞의 논문, 2001(a), 57쪽.

말했던 것을 따라 하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보기를 들면, “비가 와서 강물이 넘쳤다(It has been raining and the river is up)”는 “비가 왔소 강이 이빠이(Pi-ga wasō river ippai)”가 되었다.<sup>90)</sup>

이즈란스키(Сызранский) 가족은 남대문 4가에 있는 사이트 빌딩에서 고급 빵집을 시작했다.<sup>91)</sup> 곤차로프(Гончаров) 가족은 제과점을 열어 성공했다. 그는 또 ‘플로라(Flora)’라는 카페의 주인이기도 했다. 그 카페에서는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크렘브릴레(녹인 설탕을 위에 얹은 크림) 따위를 팔았다고 한다.<sup>92)</sup> 아마도 이들은 사업에 성공해서 꽤 많은 돈을 번 것 같다. 외국인 토지 소유 상황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소유면적으로는 불란서인과 영국인이 많고 소유면적의 시가로 보면 백계 러시아인과 중국인이 많다. 불란서인과 영국, 미국인이 소유면적에 비해 그 시가가 적은 것은 그들은 선교사나 또는 금리생활자가 대부분인 관계로 경성 시내 외의 별장지대와 주택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시가는 적고, 중국인과 백계 러시아인은 시내의 변화한 상점가에 거주하여 상공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시가가 비싼 관계라 한다.”<sup>93)</sup>

이런 예외가 있긴 했지만, 러시아인들은 대체로 가난했다.

수표정 한 모퉁이에 셋집을 얻어 사는 <에이 에이 크랜트>씨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명문대가의 자손으로 일찍이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소장이 되어 백만 군대를 거느리고 한창 때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한다.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옛날의 꿈이 되었고 한 주걱 보리밥과 말라버린 빵 덩어리로 겨우 생명을 보전하며……기자가 그 집을 방문하였을 때는 마침 점심시간이라 깨진 유리문 틈

90) Clark, 앞의 논문, 1994(a), 46쪽.

91) A. H. Ланьков, Русский Сеул: 1917-1945(<http://vestnik.tripod.com/articles/rus17-45.html>... ).

92) *Русские в Корее, ещё в начале века* (<http://www.russianskorea.com/forum/viewtopic.php?f=1&t=4858#p34598>, 검색일 2012년 7월 15일)

93) 『조선일보』, 1934년 1월 18일, “面積은 英佛人 價格은 中露人: 道内外人所有地趨勢”.

으로 찬바람이 스며드는데, 그들은 보리밥과 감자 국을 떠놓고 ……모진 풍파에 여지없이 쪼들린 그들의 얼굴에는 이마에 가로 잡힌 잔주름이 비애의 일단을 말없이 드러내는 듯하다. 남편의 나이 금년에 31, 부인의 나이 반 오십을 겨우 넘은 그들로써 그렇게 엄청나게도 늙어 보였다. 그들이 들어 있는 세집—위층은 세를 주고 아래층 한 편 방은 손님을 들게 하고 그들은 다 떨어진 장판방에 조그만 침상을 놓고 또 한 방은 식당 응접실로 겸하여 쓰고 그들의 밥벌이 인 영어 개인교수도 역시 그 방에서 하는 것이다. 테이블 한 개에 의자 다섯 밥 짓고 국 끓이는 냄비 두 개 풍로 한 개 화덕 한 개 접시 몇 개 숟가락 젓가락이 그들의 살림살이의 전부라 한다.<sup>94)</sup>

그들에게 가난보다 더 힘든 것은 정세 변화였다. 그들의 삶은 국내외 정세에 따라 달라졌다. 1925년 소일조약이 체결되자, 백계 러시아인들은 크게 동요했다.<sup>95)</sup> 그들은 소련대사의 소련국적 취득 요구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국적’자로 남아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미국으로 건너 가려고” 하거나,<sup>96)</sup> 중국으로 귀화하려고 신청하기도 했다.<sup>97)</sup> 이들 백계 러시아인들은 소련인들과 정동 대사관 구역에 같이 살면서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것은 샤브쉬나(Ф.И.Шабшина)의 회고에도 잘 나타나 있다.<sup>98)</sup> 또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살고 있는 적계 아이들과 백계 아이들은 자주 서로 주먹다짐을 하기도 했다.”<sup>99)</sup>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적계 러시아인과 백계 러시아인 사이에서는 ‘내전’이 끝나지 않았던 것이

94) 『조선일보』, 1925년 2월 25일, “가령방문곡(五). 봄빛은 언제나 오려나 하는 로국피난민 가령”.

95) 『동아일보』, 1925년 1월 31일, “白系露人の 處置, 日露條約成立으로 因한”.

96) 『동아일보』, 1925년 2월 27일, “在京露人米國으로, 삼십여명이 려행권청원중, 日露條約成立으로 자기네의 신변이 위험하므로”.

97) 『동아일보』, 1925년 5월 17일, “白系露人の 中國歸化 請願者五千名”.

98) 샤브쉬나, 앞의 책, 1996, 147~148쪽.

99) A. H. Ланьков Русский Сеул: 1917-1945(<http://vestnik.tripod.com/articles/rus17-45.html>... ),

다.<sup>100)</sup>

백계 러시아인들은 전시체제의 동원시스템에 포섭되기도 했다. 1936년 독일·일본 방공협정이 체결되고 난 뒤, 식민당국은 백계 러시아인들을 ‘반소행위’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었다.<sup>101)</sup> 백계 러시아인들은 “제국주의열강의 위세를 빌려 이른바 북벽운동을”,<sup>102)</sup> 즉 “자기들의 제국재건을 꾀하”려고 했다.<sup>103)</sup> 그래서 그들은 일본군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sup>104)</sup> 방송국에서 ‘통역’자로 일을 하기도 했다.<sup>105)</sup> 그때(1936~1939년) 『每日申報』에는 ‘동아평화를 위한 외국인들’의 국방헌금 사례를 보도했다.<sup>106)</sup>

백계 러시아인은 일정한 국적이 없이 세계 각지로 안주의 땅을 찾아……나그네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경성에 있는 30명의 백계 러시아인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국가의 덕택이라고 감격하여 금번 부내 정동정 22 백계 러시아인

- .....
- 100) 백계러시아인들은 하얼빈에 있는 이민국에 소속되어 있어 이민국의 지시에 따라 반소전선에 동원되었다고 한다.(『조선일보』, 1938년 6월 8일, “白露人の 망명촌 (5). 망명소감 至言一句”.)
- 101) 일본이 백계러시아인들을 이용하여 소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이상일, 「1937년 연해주 한인 강제이주 배경과 일본의 對蘇 정보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89~309쪽.
- 102) 「帝政復興을 꿈꾸는 白系露人の 亡命客들 (코마노프 왕조의 마리 太后妃의 抱負)」, 『삼천리』 13권 9호, 삼천리사, 1941년 9월 1일.
- 103) 『조선일보』, 1933년 6월 30일, “白系露人の 活躍”.
- 104) 民族問題研究所 編,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제4권, 韓國學術情報株式會社, 2004, 536쪽.
- 105) 「放送局에 나타난 露西亞 女性」, 『삼천리』 10권 5호, 삼천리사, 1938년 5월 1일.
- 106) 『每日申報』, 1936년 2월 14일, “白系露人이 國防獻金”; 『每日申報』, 1936년 12월 18일, “日獨防共協定으로 白系路人也 獻金”; 『每日申報』, 1937년 1월 20일, “朝鮮에서 사는 白系露人赤誠”; 『每日申報』, 1937년 5월 26일, “白系露人이 廿日 卅 獻金”; 『每日申報』, 1937년 7월 22일, “仁川白系露人 報恩獻金百圓”; 『每日申報』, 1937년 8월 9일, “白系露人也 獻金”; 『每日申報』, 1938년 1월 12일, “結婚記念日當하여 白系露人이 獻金 日本은 親切한 나라라고”; 『每日申報』, 1938년 8월 21일, “白系露人等獻金 通譯自願者도 二名”.

이 모이는 정교회에서는 이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겠다는 의미로……폴리카르프 신부가 75원을 가지고 서대문 경찰서의 초야 외사계주임을 찾아와서 사소하나마 국방헌금으로 접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sup>107)</sup>

1940년에 들어서자, 국제정세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그들은 또다시 20세기 국제정치에 좌우되었다.<sup>108)</sup> 1950년까지 한국에 남아 있었던 백계 러시아인들의 운명은 비극 그 자체였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서울에서 체포되어 심문받았고, 구금당한 뒤 평양으로 이송되었다. 그 뒤 만주 국경으로 이송되었다. 이른바 ‘죽음의 행진(Марш к смерт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sup>109)</sup> 그들은 무리를 지어 압록강 남쪽 독을 따라 계속 행진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행진 도중에 죽었고 양화진 외국인묘역에 묻혔다.<sup>110)</sup>

#### 4. 맺음말

식민지 조선의 백계 러시아인 사회는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

107) 『每日申報』, 1938년 4월 7일, “京城에 在住하는 白系露人이 獻金”.

108) Felix Patrikeef, Russian Politics in exile: The Northeast Asian Balance of Power 1924-1931, Oxford: Palgrave, 2002을 참고할 것.

10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Phillip Crosby, 앞의 책, 1985; Lawrence Zellers, In Enemy Hands, Lexington, Kentucky: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90.

110) 1950~35년 한국전쟁 동안 북한군 포로로 끌려가 죽은 백계러시아인들은 다음과 같다. 미하일 레오노프(Михаил Леонов): 1952년 사망; 예브게니 스미르노프(Евгений Смирнов): 1951년 7월 초 사망; 일라 키차코프(Илья Кичаков): 1952년 12월 17일 사망; 마담 나탈라 폰데라트(Мадам Наталья Фундерат): 1950년 11월 3일 ‘죽음의 행군’ 때 사망; 안드레이(Андрей), 이반 킬린 가족(Семья Иван Килина) 5명, 살라후틴 가족(Семья Шалахутина) 7명, 이반 티호노프, 드미트리 베레소프(Дмитрий Вересов)는 ‘죽음의 행군’ 때 죽었다.(Симбирцева, 앞의 논문, 2001(a), 61쪽.)

아래 사진은 원산의 한 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운동회의 모습이다. 한 소년이 러시아 코카서스 지방의 춤을 추고 있다. 이것은 1925년에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 신부가 촬영

〈그림 9〉



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나오는 장면이다. 그때 조선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전통춤 말고도 러시아 춤과 같은 이국 춤을 배웠다고 한다.<sup>111)</sup> 백계 러시아인들은 문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백석과 이효석은 백계 러시아인들을 주제로 한 시와 소설을 썼다. 그뿐만이 아

니다. 1924년 벨로루시인인 헬렌이라는 소녀와 그 일행이 ‘白露 피난민 자선회’ 기금모금운동으로 무도회를 가진 것, 종로 우미관에서 막간을 이용해 토슈즈를 신고 추는 춤을 선보였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발레의 기원이다.<sup>112)</sup> 이처럼 식민지 조선에 살았던 백계 러시아인들은 여러 흔적을 남겼다. 제한된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문화접속과 전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식민지 조선에 온 백계 러시아인들의 삶을 재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만큼 한계가 많다. 식민지 조선에 살았던 백계 러시아인들의 연도별 증감 추이, 출신, 직업 구성, 성비분포 따위를 정확히 규명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또 이 글은 문화접속과 전이,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분석하지도 못했다. 이를 테면, 러시아인들끼리 서로 교류가 있었는가, 그들을 대변할 어떤 단체를 만들었는가, 그들이 조선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습득했는가, 또 조선인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일본 식민

111) 노르베르트 베버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112) *Русские в Корее, ещё в начале века* (<http://www.russiankorea.com/forum/viewtopic.php?f=1&t=4858#p34598>, 검색일 2012년 7월 15일).

당국은 러시아인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면, 풍습·습속과 같이 일상과 밀착되어 있는 부분을 탐색하는 미시적 접근 방법을 써야 한다. 또 그 주체들이 이산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분석해야 했다. 이것은 뒷날의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다.

## 참고문헌

- 朝鮮總督府內務局編, 『露國避難民救護誌』, 京城, 1924.
- 『별건곤』, 제33호, 1929년.
- 『삼천리문학』, 제2집, 1938년.
- 『삼천리』, 제10권 제5호, 1938년.
- 『삼천리』, 제13권 제9호, 1941년.
- 『朝鮮 及 滿洲』, 제185호, 1923년.
- 『동아일보』, 『每日申報』, 『조선일보』.
- 디오니시 빠즈드냐예프 엮음, 이요한·이정권 옮김, 『러시아 정교회 한국 선교이야기』, 흥성사, 2012.
- 매티 월콕스 노블 지음, 강선미·이양준 옮김, 『노블일지 1892~1934: 미 여선교사가 목격한 한국근대사 42년간의 기록』, 이마고, 2012.
- 윤상원, 「시베리아내전의 발발과 연해주 한인사회의 동향」, 『韓國史學報』 41, 2010.
- 이상일, 「1937년 연해주 한인의 강제이주 배경과 일본의 對蘇 정보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2002.
- 이채문, 『동토의 디아스포라: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인들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07.
- 진시원, 「동아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기원과 역사: 청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까지」, 『國際政治論叢』 제44집 3호, 2004.
- 倉田有佳, 「元山におけるロシア人避難民: 1922年11月-1923年8月」,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자료집, 2006.
- 倉田有佳, 「元山のロシア人避難民」, 『異郷に生きる-來日ロシア人の足跡』, 成文社, 2001.
- 파나 이사악꼬브나 샤브쉬나 지음/ 김명호 옮김, 『식민지조선에서』, 한

을, 1996.

황동하 외, 『러시아, 우리에게 무엇인가』, 신인문출판사, 2010.

Donald N. Clark, “Vanished Exiles: The White Russians of Korea and their Fate,” in Korean Studies: New Pacific Currents, ed. Dae-sook Suh,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The Western Experience 1900-1950, Norwalk: Eastbridge, 2003.

Donald N. Clark,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t Yanghwajin: An Informal History with Notes on Other Foreign Cemeteries in Korea and Individuals and Families in the History of the Foreign Community in Korea, Seoul Union Church 144 Hapchong-dong, Map'o-gu Seoul 122-220, Korea, 1996.

Felix Patrikeef, Russian Politics in exile: The Northeast Asian Balance of Power 1924-1931, Oxford: Palgrave, 2002.

J. Earnest Fisher, “William W. Taylor,” in Pioneers of Modern Korea,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77.

Lawrence Zellers, In Enemy Hands, Lexington, Kentucky: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90.

Mary Linley Taylor, The tiger's claw; the life story of East Asia's mighty hunter, London: Burke, 1956.

Mary Linley Taylor, Валерий Янковский, Юрий Янковский, Т. Симбирцева (Translator), Нэнунн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одиссея, Библиотека альманаха “Рубеж”, 2007.

Phillip Crosby, March Till They Die, Dublin: Press of the Publishers, Clonskeagh, Co., 1985.

Rock Brynner, Empire & odyssey: the Brynners in Far East Russia and

- beyond, Hanover, N. H.: Steerforth Press, 2006.
- Valery G. Yankovsky, Escape: A True Story, Sydney: Elliott Snow, 2008.
- Valery G. Yankovsky, From The Crusades to Gulag and Beyond, Sydney: Elliott Snow, 2007.
- W. A. Noble, "The Russian Refugees at Wonsan," The Korea Mission Field, XVIII: 11, December 1922.
- А. Н. Ланьков, Русский Сеул: 1917-1945(<http://vestnik.tripod.com/articles/rus17-45.html>...검색일 2012년 6월 2일)
- Архимандрит Феодосий (Перевалов), Россий ская духовная миссия в Корее за первое 25-летие ее существования (1900-1925 гг.), Харбин, 1926.
- Б. Б. Филимонов, Конец Белого Приморья, Роквилль, 1971.
- В. П. Старк, "Адмирал Ю. К. Старк.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ибирской флотилии. 1920-1922 гг.," Звезда, No.2. 2001.
- В. Ю. Янковский, "Novina," Восточная коллекция, No. 3, 2002.
- В. Ю. Янковский, "Янковские и корей цы," Л. П. Концевич ред., Россий 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Вып. 5. М., 2007.
- К. С. Чиркин, "Люди и судьбы. Записки русского эмигранта в Корее," Л. П. Концевич ред., Россий 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Вып. 3. М., 2003.
- М. М. Гинце, "Новина и Лукоморье, поместья семьи Янковских в Корее(воспоминания юного дачника)," Л. П. Концевич ред., Россий 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Вып. 5. М., 2007.

- Русские в Корее, ещё в начале века(<http://www.russiankorea.com/forum/viewtopic.php?f=1&t=4858#p34598>, 검색일 2012년 7월 15일)
- С. В. Волков, “К вопросу о русской эмиграции в Корее в начале 20-х годов,”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Вып. 2. М., 2001.
- С. В. Чиркин, Двадцать лет службы на Востоке. Записки царского дипломата, Русский путь, 2006.
- Т. М. Симбирцева,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прошлом неотрывны от реалий дня нынешнего(по поводу публикации записок К. С. Чиркина, навеянных мемуарами Ф.И. Шабшиной),” Л. П. Концевич ред.,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Вып. 3. М., 2003.
- Т. М. Симбирцева,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Общины в Корее: Проблема Изучения и Новые Факты,”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ифы, Ожидания и Реальность, Часть 2. М.: ИДВ РАН, 2001.
- Т. М. Симбирцева, “Семья Янковских в истории Приморья и рус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Л. П. Концевич ред.,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Вып. 5. М., 2007.
- Ю. К. Старк & В. П. Старк, Последний оплот: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ибирской флотилии 1920-1924, Русско-Балтийск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БЛИЦ«, 2003.
- Ю. К. Старк,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ибирской флотилии 1921-1922 годов(<http://militera.lib.ru/h/whitefleet/30.html> 검색일: 2012년 9월 12일).

## 국문초록

이 글은 식민지시기에 조선에 들어선 백계 러시아인 사회를 분석한 것이다. 백계 러시아인 사회는 20세기 초 국제정치 상황에 휘둘린 망명촌이었다. 1920년대 초 한반도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불세비키에 쫓겨 피난 온 백계 러시아인들의 피난처였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상하이, 홍콩, 하얼빈,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샌프란시스코 등지로 다시 떠났지만, 일부는 한반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한반도에 머문 사람들은 식민지시기 조선의 경성과 함경북도 경성군 주읍에 백계 러시아인 사회를 만들었다. 경성에는 정동과 남대문 일대를 중심으로 백계 러시아인 사회가 형성되었다. 정동에는 주로 제정러시아 귀족과 장교, 성직자들이 살았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남대문 일대에 살았던 백계 러시아인들은 오늘날 3D 업종에 해당하는 노동을 하면서 살았다. 함경북도 경성군 주읍에는 폴란드 귀족의 자손인 유리 안코프스키가 동아시아의 백계 러시아인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노비나’ 촌을 만들었다. 안코프스키 일가는 일본식민당국의 후원으로 농장 경영, 가축 사육, 사냥, 휴양지 제공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 그러나 조선의 백계 러시아인 사회는 20세기 국제정치에 또다시 좌우되었다. 1940년에 들어서 국제정세에 전운이 감돌자, 백계 러시아인들은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떠나지 못하고 1950년까지 한국에 남아 있었던 백계 러시아인들은 북한군 포로로 송환되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

**주제어** : 식민지시기, 원산, 경성, 주읍, 러시아 내전, 백계 러시아인, 백계 러시아인 사회, 러시아 피난민, 한·러 관계

Abstract

## The White Russian Community in Colonial Chosen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white russians community which have formed in Chose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any white russians fled to the Korean peninsula seeking refuge from the Bolsheviks who advanced to the Russian Maritime Province in early 1920's. When the Bolsheviks advanced to Vladivostok in 1922, about 8,870 people under the command of Admiral Stark embarked on a fleet of old and rusty vessels to sail to the nearest foreign port of Wonsan. In Korea they were looked after by the Japanese Red Cross organization and then, ten months later, sailed further to Shanghai, Australia, Canada, California etc. But the part of them remained in Chosen during 1920's~1950. By the late 1920s, there were only around a hundred Russians living in Seoul. Former nobles and officials, priests lived in Jeongdong, while a community of Tatars lived and worked in the markets near Namdaemun and Honmachi. However the two groups had little interaction with each other. The high level of education and professional skills in Jeongdong allowed many of them to gain prestigious positions at the schools and hospitals etc. But escaped with nothing in hand, the white russians in Namdaemun and Honmachi had to start from the beginning. They worked mostly hard. George Yankovsky, the grandson of a Polish noble exiled to Siberia, also maintained a resort in Juel which was

popular among the Russian communities of East Asia. The Yankovskys gained respect and protection of the Japanese General Governor of Korea.

But the white russians lived their tragic lives in the course of the struggle of Great Powers for domination in East Asia. They all found themselves hostages of the grand political game which continued in the region throughout the 20th century. The major events – the Civil War in Russia, the War in the Pacific – proved equally cataclysmic for the life of the White Russians residing in Korea. Even after WWII the destiny of Russian migrants remained no less tragic.

**Key words** : Japanese colonial period, Wonsan, Kyungsung, Juel, the Civil War in Russia, White Russian, White Russian Community, Russian Refugees, Korea-Russia relationship